

나라살림브리핑 제4호

작성: 이상민 상임연구위원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객원교수 | 서울 중로구 가회동 195 | <http://www.narasallim.net/> | 02-723-0619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예산 865억원(35%증대)

코리아에이드, 새마을ODA 등 17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확인된 사업만 총 865억원

나라살림연구소, 17년 정부예산안 분석 통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예산이 전년도 보다 35%증대된 865억원이라는 사실 지적해

- 요약 -

- 내일(25일)부터 국회가 예산심의를 시작함. 그러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논란으로 예산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의심스러움.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구체적 논쟁’이 될 수 있도록 17년 정부안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관련예산을 조사함.
- 미르재단이 개발한 비빔밥 등을 원조해주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17년 예산에 144억이 반영되었음. 또한 K스포츠재단이 해외태권도 공연을 지원해주는 태권도진흥예산은 169억원이 책정되었음.
- 17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드러난 두 재단 관련 사업은 전년도 보다 35%증대된 총 865억원으로 조사됨. 이는 17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드러난 규모로 추후 조사를 통해 동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음.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예산
코리아에이드	-	14,356
새마을운동세계화	2,538	3,518
새마을운동 ODA	40,268	39,623
KOPIA시범마을조성	2,500	2,500
국가이미지홍보	8,446	9,683
태권도진흥	10,520	16,859
합계	64,272	86,539

I.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17년 예산 분석 배경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된 17년 예산을 내역을 밝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오해대신 ‘팩트’위주의 생산적인 예산 심의를 가능케 하고자 함.

- 국회는 내일부터(10.24.) 2017년 예산 심사에 돌입함.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가 제출한 약 400조원의 2017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임.
- 그런데 최근 국회와 언론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정부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으로 예산심의를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의심스러움.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된 사업이 2017년 정부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오해를 정리하고 구체적 사실을 통한 생산적인 예산심의를 가능하고자함.
-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9.2.) 2017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두 재단 관련된 사업이 다수 확인됨. 두 재단 사업의 절대적 예산금액과 2016년 예산 대비 증가정도를 파악하여 문제재단을 지원하는 예산이 과도한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함.

II.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17년 예산 분석 결과

2017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두 재단 관련 예산은 865억원. 전년도보다 35%증대됨.

1. 두 재단 2017년 전체 예산

- 현재까지 2017년 공개된 예산서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64,272백만원에서 2017년 86,539백만원으로 35% 증대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코리아에이드사업이 144억원, 새마을운동ODA(외교부) 사업이 396억원, 태권도 진흥 169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2017년 총지출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 3.7% 증가한 것에 비해 35% 증대는 평균 증가율보다 매우 큰 규모임.

<표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된 17년도 예산 금액 변화 >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예산	관련이유	해당부서	내용
코리아에이드	-	14,356	K-meal사업을 미르재단이, 출범식 기념공연은 K스포츠재단이 담당	외교부	해외원조사업으로 비빔밥 등 제공
새마을운동세계화	2,538	3,518	미르재단 조희숙 이사, 새마을 운동 ODA 사업 총괄 위원	행자부	새마을중앙회 민간경상보조 사업
새마을운동 ODA	40,268	39,623	상동	외교부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촌 공동체 개발사업
KOPIA시범마을조성	2,500	2,500	상동, KOPIA가 K-meal사업	농촌진흥청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 정신 전파
국가이미지홍보	8,446	9,683	K스포츠 공연	문체부	순방시 태권도 공연
태권도진흥	10,520	16,859	K스포츠 공연	문체부	태권도진흥재단 지원사업과 별도의
합계	64,272	86,539			35% 증대

* 나라예산네트워크,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변동

2. 해당사업 세부 내역)

□ 코리아에이드:

-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16년 관련 예산은 없음. 단, 대통령 해외 순방 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서의 자체예산으로 16년 사업을 진행했음.
- 예를 들어 미르재단이 관련된 'K-meal' 사업은 K-meal ODA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세부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함.
- 1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이상 6개국에 144억원의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은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이 진행함. 또

1) 나라예산네트워크,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나라예산네트워크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 예산관련 네트워크 모임으로, 참여연대가 나라예산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내용)

2) 소비자 체험예산이 다 사용된 이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함.

한 영상물 제작은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함.

-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 가공 제품을 이 예산으로 구입해 3개국에 배포함. 그러나 푸드트럭을 이용해 비빔밥 등을 제공하는 K-meal 사업은 현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 요청이 있어 중단 및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음. 쌀 가공품(크래커, 파우더 등) 제공 사업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 새마을운동세계화(외교부), 새마을운동ODA(행정자치부):

- 외교부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에디오피아, 르완다 등 농남아, 아프리카국가에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명목의 ODA사업임.
- 2016년 40,268백만원, 2017년 39,62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외교부)
2016년 2,538백만원, 2017년 3,51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행자부)
-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조희숙 미르재단 초창기 이사가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총괄하는 '새마을분과위'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고 함. 조희숙 이사를 추천자는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추천이라고 함.

□ KOPIA(농촌진흥청 산하 해외농업기술센터)시범마을 조성:

- 농촌진흥청이 근면, 자조, 협동 등의 새마을 정신을 해외 농촌에 전파하는 사업임.
- 2016년, 2017년 모두 2,50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조희숙 미르재단 초창기 이사가 새마을운동 ODA총괄하는 위원일 뿐만아니라 KOPIA가 K-meal 푸드트럭사업을 했던 기관임.

□ 국가이미지홍보 중 한국문화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예산:

- 국가이미지홍보 예산 사업 중 대통령 순방 계기의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하는 사업임.
- 2016년 1,000백만원 , 2017년 1,80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란, 아프리카 3개국 등에서 태권도 시범공연에서 K스포츠재단이 공연함. 또한, 밀라노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K스포츠재단이 공연함.

□ 태권도 진흥:

- 해외공연사업 등 지원. 기존의 태권도진흥재단운영지원 예산사업과 별도로 편성된 태권도 진흥사업임.
- 2016년 10,520백만원 , 2017년 16,85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대신 기존의 태권도진흥재단 예산은 16년 21,266백만원에서 17년 18,239백만원으로 줄었음.
- 해외공연사업에 K스포츠의 태권도 공연이 포함되었음.

Ⅲ. 결론: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2017년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관련된 예산은 2016년도 64,272백만원에서 2017년 86,539백만원으로 35% 증대되었음이 확인되었음. 그러나 이는 예산서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사업만 추린 것으로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그 범위가 늘어 날 수 있음.
- 다만 상기된 예산은 두 재단과 ‘관련 된 예산’일 뿐 전액이 두 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님. 실질적으로 두 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관련된 예산의 일부만 사용 될 것임.
-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 국회예산심의를 앞두고 과도한 정치적인 논란으로 진지한 국회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우려스러움.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치적 논란’이 아닌 ‘구체적인 논쟁’이 이루어져야함.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이상민 책임연구위원 723-0619, 011-212-7667
E-mail : rsmtax@gmail.com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법률 진행사항과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rsmtax@gmail.com
